

대한병리학회 월례슬라이드 집담회

—30주년을 맞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지 제 근

머 리 말

우리가 “먼스리” 혹은 “월례집담회”로 부르고 있는 월례슬라이드 집담회, Monthly Slide Conference(이하 월례집담회로 약함)는 이제 대한병리학회의 주요행사일 뿐 아니라 회원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행사로 자리를 굳혔다. 엄격한 학술행사이지만 이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뿐 아니라 우리 학회 설립목적 중의 하나인 친목도모의 현상이 되고 있다. 이제 이 행사가 시작된지 만 30년이 지난 시점에 서서 이에 대하여 회고하고 또 분석하여 앞으로의 발전에 참고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1. 월례 Slide 집담회의 시작과 초창기 (1959-1960년)

어떠한 행사든 처음부터 완전한 규격을 갖추고 시작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처럼 월례집담회도 처음에는 몇몇 사람이 모여 시작된 것 같다. 시작당시 그 명칭이 우리말로 어떻게 불리웠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때도 “Monthly Slide Conference”라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되며 당시 서양사람들은 “Monthly Meeting of Seoul Pathologist”로 기술하고 있다¹⁾.

이 집담회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불행하게도 당시 그 집담회에 주요 멤버로 참석하였을 분들이 현재 대부분 계시지 않는다. 몇년 전 대한병리학회 월례집담회 수록집(1986)²⁾을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slide가 1961년도부터 있었기 때문에(계명대의 정재홍 교수 소장) 월례집담회의 시작연대를 1960년으로 잠정 결정하였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적어도 1959년부터 시작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국립의료원 제 2대

병리과장을 역임한 Dr. Ringsted(1959. 7. 26-1961. 7. 28 근무)에 의하면 이 집담회는 국립의료원(이하 NMC로 약함) 초대병리과장이었던 Dr. Arnesen(1958. 8. 1-1959. 7. 23 근무)이 처음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기록은 “Monthly Meeting of Seoul Pathologist. These meetings that are hel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r at National Medical Center were started by Dr. K. Arnesen. Meetings have been held regularly with demonstration and discussion of cases with diagnostic problems or of cases of special interest”라고 되어 있다³⁾. 이상의 기록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당시 서울대학교 병리학교실의 이성수 교수가 오래전에 작고하셨기 때문에 한국측의 주장을 접할 수 없기는 하나 그즈음 Dr. Arnesen이 서울의대, 수도의과대학(현 고려의대), 성신외과대학(현 가톨릭의대) 학생강의에 출강하였던 사실로 보아(NMC Annual Report, 1960), 서울의대와 NMC에서 교대로 회합을 가졌었다고 판단된다. 사실 이에 관한 더욱 상세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필자는 당시 성신외과대학 병리교수(조교수)이면서 현재 재미중인 이호영 선생님을 도미시 방문하여 물어보았으나 그 이상의 사실을 알아낼 수 없었다. 어쨌든 시작 당시의 참석자는 이성수(서울의대 조교수), Arnesen(국립의료원 병리과장), 김순웅(연세의대 조교수), 이호영(성신외과대학 조교수)을 위시하여 이상국(서울의대 강사), 최병호(연세의대 강사), 김기홍(국립의료원 병리과 수석의무관) 등의 여러 선배님들이었다고 생각된다.

1959년과 1960년의 2년간 각 대학에서 어떤 증례를 몇 예씩 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중 기록에 남아있는 국립의료원 증례는 Table 1 및 2와 같다. 이에 따르면 적어도 NMC에서는 2-3증례를 발표하고 기타 기관에서는 1

Table 1. Cases presented by NMC in 1959

Case	Submitter
Granulomatous inflammation	Dr. Arnesen
Hemangiopericytoma	Dr. Arnesen
Cystosarcoma phyllodes	Dr. Arnesen
Mixed sarcoma of kidney	Dr. Arnesen
Carcinoma of thymus	Dr. Arnesen
Systemic granulomatous inflammation	Dr. Ringsted
Liver cell carcinoma	Dr. Ringsted
Basal cell papilloma	Dr. Ringsted
Plasma cell pneumonia	Dr. Ringsted
Mucoepidermoid carcinoma of parotid gland	Dr. Ringsted

Table 2. Cases presented by NMC in 1960

Month	Diagnosis
January	Mixed neurogenic tumor of orbit (traumatic encephalocele?)
February	Metastatic liver cell carcinoma of femur, simulating hypernephroma
March	Parotitis with eosinophilia. Reticulosis (Letterer-Siwe disease?)
May	Tumor of orbit (malignant melanoma?)
June	Adenomyosis of uterus with carcinoma of endometrium
September	Adenoid cystic carcinoma of palate
October	Clonorchiasis with bile duct carcinoma Glomerulonephritis of undetermined type Adenoma of pancreas (insulinoma?)
November	3 cases of intrahepatic cholestasis of unknown etiology in children
December	Chromoblastomycosis. Histoplasmosis (?) Cryptococcosis (?)

에 정도 발표하였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NMC에서는 1959년 1년 동안에 부검이 141예가 있었고 외과병리가 1935예 정도 있었기 때문에 증례가 풍부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그 종류도 다양하고 희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1,3)}

당시의 회의진행은 Dr. Arnesen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였으며 참석인원이 10명 내외였기 때문에 참석한 전원이 한마디씩 본인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었다⁴⁾. 1959년도에는 각자 slide을 가지고 모여서 환등기로 비추면서 토의하는 방식이었으나 1960년부터는 구두로 발표한

내용을 녹음하여 이를 NMC에서 타자 복사하여 후에 나누어 주었다. 이러한 일들을 수행함에는 NMC의 석동수 선생님과 지정희 선생님의 노고가 컸다고 한다. 필자는 당시 서울의대 3학년 재학중 병리학교실을 드나들었는데 이성수 교수를 따라 1960년도 월례집담회에 몇번 참석하였던 기억이 있다. Dr. Ringsted가 제 2대 NMC 병리과장 시절이었는데 열성적인 태도와 복구식 영어발음이 인상적이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2. 제 2기 (1961년-1963년)

1960년 말부터 외국(주로 미국)으로부터 근대 병원병리학의 수련을 마치고 미국 전문의자격을 가지고 귀국한 학자들이 많아 월례집담회가 자못 활기를 띄었다. 특히 국립의료원에서 근무한 분들이 주축이 되었는데 국립의료원의 이유복 선생님(1960. 11. 20-1963. 3. NMC 근무), 김은자 선생님(1960. 9. -1961. 2. NMC 근무) 그리고 장관식 선생님(1962. 11-1964. 12 NMC 근무), 서울의대의 백승룡 교수 그리고 연세의대의 이종무 교수(1961. 9-1965. 9 연세의대 근무)등이었다. 1963년 경에는 참석인원이 20-30명에 이르렀으며 당시는 난온방이 잘되는 NMC의 소강당에서 주로 모였다. 당시 NMC 제 4대 과장으로 와있던 Dr. Thorborg는 회의 끝난후 북구산 맥주를 대접하여 각학교 소장파들 사이에 오갔던 뜨거운 토론의 열기를 식히면서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었다. 이때부터 참석기관이 점차 늘어서 한달에 평균 10례정도 토의되었으나 많을 때는 15예도 있었다. 물론 1기관에서 1-3예로 기관에 따라 5예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참가기관은 서울의대, 연세의대, NMC가 규칙적으로 제출하였으며 1961년부터 수도의대(현 고려의대)와 수도육군병원이, 그리고 1962년부터는 대구동산병원(현 계명대의대), 이화의대, 미군 121 후송병원 그리고 육군중앙의무시험소가 합세하였다. 1963년에는 서울적십자병원이 참여하였다. 이때만 해도 slide를 11장만 배부하면 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여러 증례를 제출할 수 있었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할 사항은 이러한 행사를 위하여 slide 수집, 배부, 기록정리 등을 모두 NMC 병리과에서 맡아 수고하였다는 사실이다.

3. 제 3기 (1964년-1972년)

1964년이 되면서 1959년부터 5년동안 활발히 진행되던 월례집담회가 약간 침체되었다. 그 이유는 초창기 활

동하던 병리학자들중 많은 분들이 당시 추세에 따라 대거 도미 혹은 재도미하였고 일부는 군복무 기타 사정으로 직장을 비우게 되었기 때문인데 따라서 이 시기는 가히 암흑기에 해당하는 시기였다. 급기야는 1964년 6월부터 1년간 월례집담회가 휴회되었는데 그 이유를 당시 제 5대 NMC 병리과장이던 Dr. Giertsen은 '적당한 증례가 없어서'라고 기록하고 있다²⁾. 1966년에 들어서도 활동이 비교적 미미하였던 바 항상 제출하는 기관인 서울의대, 연세의대, NMC, 가톨릭의대에 의해 그런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1968년에 공군항공의료원이 추가되었다. 병리학회 수록집에도 이 시기의 보관사항이 가장 나쁜것으로 보아 이때의 월례집담회는 많은 사람들의 흥미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 같다. 침체기를 언제까지로 볼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필자는 수록집(1986)²⁾에 의거하여 1970년까지 잡았다.

4. 제 4기 (1971년-1983년)

그동안의 도미추세는 미국 이민법의 변경과 미국내 병원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대폭 줄어들면서 국내학자들은 다시 모여 오붓한 회합을 갖게 되었다. 이무렵 각대학에서 장단기 도미 유학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학자들이 많았으니 연세의대의 최인준 교수(1971년 귀국), 서울의대 합의근 교수(1971년 귀국), 김용일 교수(1970년 귀국) 그리고 부산의대를 사직하고 도미하여 Barnes병원에서 외과병리를 전공한 이중달 교수(1973년 귀국) 등 제학자들이 월례집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기였다. 이때부터 월례집담회는 대한 병리학회의 공식행사로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따라서 기록도 비교적 잘 유지되어 있다.

1973년 당시 참가하는 기관은 서울의대, 연세의대, 우석의대(현 고려의대), 가톨릭의대, 국립의료원, 중앙의대(한강성심병원) 등이었으며, 1974년에 서울 백병원이 증례를 처음 제출하였고, 1975년에 고려병원과 한양 의대가 증례를 제출하게 됨으로써 1년에 토의한 전체 slide 예수가 108예에 달하게 되었다(Table 3). 1976년에는 경북의대, 부산의대, 경희의대가 참가함으로써 전국 규모의 집담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참고로 1976년도에 토의된 증례내용과 제출기관을 보면(Table 3) 지금까지 가장 많은 총 120예로서, 가톨릭의대(19), 국립의료원(16), 연세의대(14), 고려병원(13) 서울의대(12)의 순으로 증례를 많이 제출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당

시 가톨릭의대의 이중무 교수와 고려병원의 이중달 선생 사이의 활발하고 열띤 토의는 집담회의 화제가 되었다. 그렇듯 열성스럽던 이중무 교수는 1983년 도미, 필라델피아 하네만의대 병리에서 전문의 수련을 마치고 1961년 귀국하여 1965년까지 연세의대에서 그리고 1965년부터 1983년 작고하시던 해까지 가톨릭의대에서 근무하시면서 월례집담회의 발전을 위하여 크게 공헌하였다. 거의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을 뿐 아니라 모든 제출된 증례를 자세히 보고와서 진지한 토의를 함으로써 후배 동료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 1977년에 순천향 의대병원이 첫 증례를 냈으며(FKSP-77-47)이어 전남의대(FKSP-77-52, 1208A-77), 조선의대(FKSP-78-10, S-1191, 77), 한림의대병원(FKSP-77-54), 대구 파티마 병원(FKSP-77-88, S-77-1405)이 각각 증례를 제출함으로써 참가기관이 총 20기관에 이르게 되었다. 1978년 들어 을지병원(FKSP-78-24, S-78-33)이 새로 증례를 제출하기 시작하였으며 1979년에 전북의대(FKSP-79-3)가 그리고 1980년에는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FKSP-80-36, KP-602-80)이 각각 추가되면서 연간 100예 내외를 토의하였다.

1982년에 이르러 그동안 묵계처럼 되어있던 영문 증례 요약물 한글로 제출하는 기관이 생겼다. 이것은 자연발생적인지 합의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연세의대(FKSP-82-34, S-81-9186)와 서울의대(FKSP-82-35, S-82-3759)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연세의대에서는 그해 다음 증례(FKSP-82-52, S-82-3423)부터 다시 영문으로 바꾸었고 서울의대도 같은 해에 다시 바꾸었다(FKSP-82-60, S-82-8013). 1982년 새로 들어온 기관은 제일병원(FKSP-82-50, S-82-1621)이 있었다. 1983년 새로 들어온 기관은 충남의대(FRSP-83-20, S-83-288)와 부산 백병원(FKSP-83-38, S-83-985 B)으로 이렇게하여 총 제출기관이 29개 기관이 되어 명실공히 전국 규모의 월례집담회가 되었다.

5. 제 5기 (1984년-1988년)

1984년 1월 대한병리학회 상임평의원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월례집담회를 좀 더 발전시키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한 결과 지금까지의 형식을 개선하여야 할것으로 다음과 같은것이 지적되었다. 즉 1) 참석인원수가 매회 100여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있고 또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곳을 정하여 일정 장소에서

Table 3. The number of discussed cases by year and submitted institutions

기 관 명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Total
1. 서울의대	?	?	18	26	23	11	2	0	0	3	4	2	3	4	10	11	14	12	14	10	9	9	18	20	20	13	10	10	10	9	295
2. 연세의대	?	?	9	22	31	8	0	0	0	0	1	2	2	0	12	8	12	14	14	11	6	8	10	10	14	12	9	9	9	10	243
3. 국립의료원	10	14	32	31	26	7	0	3	0	2	3	2	1	2	0	5	14	16	14	4	4	7	7	6	7	4	0	1	0	4	226
4. 가톨릭의대	?	?	2	15	18	7	3	0	0	4	4	2	1	8	12	10	26	19	14	11	8	8	14	16	9	5	3	1	2	7	229
5. 고려의대	0	0	3	3	0	0	0	0	0	1	0	1	2	3	11	4	9	9	10	8	5	5	12	10	9	6	8	6	5	7	137
6. 수도육군병원	0	0	1	0	0	0	0	1	0	0	0	0	0	0	0	0	2	2	2	0	0	0	0	0	0	0	0	2	1	0	11
7. 이화의대	0	0	0	4	0	0	0	0	0	1	0	0	0	0	0	1	6	2	5	4	3	6	7	6	4	2	1	0	1	0	53
8. 대구중앙병원 (제명의대)	0	0	0	3	6	0	0	0	0	2	0	0	0	0	0	0	8	4	2	2	1	2	3	2	2	2	1	3	3	3	49
9. 미121병원	0	0	0	1	13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7
10. 육군중앙의무 시험소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1. 서울적십자병원	0	0	0	0	1	0	0	0	0	0	0	1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12. 공군항공의료원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3. 중앙의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0	1	0	3	1	4	2	4	0	0	2	1	0	0	0	21
14. 서울백병원 (인제의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2	0	1	2	3	4	2	4	5	4	3	4	1	36
15. 고려병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	13	9	9	6	7	0	0	1	1	0	0	0	0	53
16. 한양의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9	6	4	3	4	3	0	0	2	11	9	10	10	80
17. 경북의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2	1	1	0	0	0	2	3	1	0	0	0	0	12
18. 부산의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2	1	2	1	0	0	1	1	1	1	1	0	0	11
19. 경희의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13	12	9	10	18	17	13	10	9	8	10	10	142	
20. 순천향의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2	1	3	2	1	0	1	1	1	1	14
21. 조선의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7	3	1	0	0	1	0	0	0	0	0	13
22. 전남의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3	2	1	6	6	1	3	3	2	3	1	32
23. 한림의대(한강, 강남, 강동)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1	1	0	1	2	1	2	0	4	14
24. 대구파티마병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0	0	2
25. 을지병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1	0	0	0	0	0	0	0	0	0	3
26. 전북의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1	0	0	0	0	0	3
27. 제일병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0	1	1	1	5
28. 충남의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2	0	1	1	1	9
29. 부산백병원 (인제의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1
30. 원주의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5	2	3	8	22
31. 서울치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1
32. 영동세브란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1	1	4
33. 서울대소아병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8	8	8	26
34. 경상의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2	0	0	4
35. 부산백병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0	2
36. 대구카톨릭병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1
37. 고대구모병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2	1	6
38. 전주여수병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1
39. 서울임상검사센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1
40. 고신의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2
41. 영남의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42. 미 상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12	3	0	0	0	0	0	0	0	0	0	0	0	17
Total	10	14	65	106	118	36	5	4	0	14	12	10	11	17	48	42	108	120	119	91	73	76	110	98	96	81	77	78	77	89	1805

모든 월례집담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지금같이 매달 장소를 바꾸는 것보다 좋겠다. 2) 주최하는 병원 병리과에서 참석자들을 위한 음식대접등의 부담을 주면 폐가 되니 이것도 회비제도를 도입하여 운송비등 일체를 참석기관별로 담당토록 함이 좋겠다. 3) 진행형식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제출자가 먼저 설명을 한 후 토의하는 방법을 고쳐서 토의자를 미리 정하여 먼저 토의가 진행된 후 제출자가 자신들의 진단을 밝히는 제도의 도입을 조심스럽

게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다. 4) 토의내용의 요약과 토의증례의 주요 육안사진 및 기타 환등사진을 복사하여 다음달에 분배함으로써 보관과 참고를 용이하게 하고 또 교육자료로 활용함이 좋겠다. 이상 4가지로 요약되는 결정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동 평의회에서는 일차로 서울의대 병리학교실에게 그 첫임무 즉 용역을 주면서 이에 관한 일체사항을 1년간을 위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84년 3월 월례집담회부터 새로운 제도들

도입하였던 바 1) 장소는 서울대학교병원 강당으로 정하고, 2) 회비는 기관당 년회비로 10만원씩 하되 학회에서 해부병리 정도관리비의 명목으로 그 청구서를 각 기관의 기관장에게 보내서 공금으로 쓸수 있게 하였으며, 이 회비로 슬라이드 우송료, 집담회 당일 식대(빵과 우유), 토의내용 요약 복사대, 환등 슬라이드 복사료등을 충당하게 하였으며, 3) 지명토의자는 그 방면에 흥미를 가진 분들을 미리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증례를 전국의 3년차 전공의들을 순서대로 지명하도록 하고, 4) 사회는 그때그때 전국의 주임교수급으로 위촉하고, 5) 1984년 3월부터의 증례를 일련번호를 주어 KSP (Korean Society of Pathologists의 약자) 번호를 쓰기로 하였다. 따라서 1984년 증례들중 2월 것은 첫번째 KSP series를 나타내는 FKSP(First series KSP) 즉 과거 보관번호가 붙어있고 3월부터는 새로 KSP번호가 붙게 되었다(병리학회 월례집담회 수록집 참고). 이렇게 되어 KSP-1은 가톨릭의대 강남 성모병원에서 제출한 증례 S-83-3036가 되었으며 이렇게 시작한 것이 1988년말까지 KSP-300이 되었다. 1984년 당시 slide를 배부받는 기관은 60기관에 이르렀다. 따라서 제출기관에서는 slide를 65매씩 제출하여야 했다.

1984년에 들어서 원주의대(FKSP-84-1, S-83-4205)가 그리고 처음 서울대 치과대학 구강병리과(KSP-24, S84-1084)가 제출하였고 이때부터 1기관 1증례의 원칙이 세워져서 한달에 6-10예의 증례가 토의되었다. 1985년에 영동세브란스병원(KSP-98, S85-982), 경상의대(KSP-117, S85-501), 서울대소아병원(KSP-144, S85-1), 부산백병원(KSP-132, OS-82-503) 그리고 대구 가톨릭병원(KSP-149, S85-257)이 증례를 처음 제출하였으며 이때부터 고려의대도 해화병원과 구로병원으로 구분되었다. 1986년에 들어서 고려의대 구로병원이 첫증례(KSP-203, S86-3877)를 제출하였으며 전주 예수병원(KSP-212, 86-B-2667) 그리고 서울임상검사센터가 첫례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1987년에 고신의대가 그리고 1988년에 영남의대가 참가함으로써 1988년까지 한번 이상 월례집담회에 증례를 제출한 기관은 41개 기관이고 토의된 총 증례수는 1,805례에 달하게 되었다. 이중 지난 30년간 200예 이상을 제출한 기관은 서울의대, 연세의대, 가톨릭의대, 국립의료원의 4기관이고 100예 이상은 고려의대와 경희의대이고 50예 이상은 이화의대, 고려병원, 한양의대 등이다(Table 3).

1984년 1월부터 시작하여 동 12월까지 1년동안 토의 요약과 필요한 육안사진 및 X-선 사진(1회 5-10장) 그리고 이를 철할 수 있는 binder를 배부하였다. 집담회는 매회 100-120명 정도의 회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첫 1년을 마쳤다. 1984년 12월 집담회에서는 집담회후 송년회로 NMC 강당에서 칵테일 파티를 가졌는데 여기서 1984년도 경과보고와 재무보고가 있었다.

1985년도 대한병리학회 상임평의원회에서는 월례집담회를 1년 더 서울대에서 맡을 것을 결의하여 1984년도와 같은 형식으로 1985년도 진행하고 1985년 12월 집담회에서 경과 및 재무보고를 하였다. 1985년부터 토의 증례의 목록과 진단분류를 시작하였으며 지명토의제도가 정착되었다.

1986년도 학회 상임평의원회에서는 또 다시 1년 더 서울의대에 월례집담회 용역을 맡기기로 결정하였고 이때부터는 신축된 서울대소아병원 제 2 강의실에서 집담회를 가졌다. 평균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였으며 1월은 전문의 시험관계로, 5월은 봄학회 Slide Seminar로, 8월은 하기 방학으로 그리고 10월은 가을학회 Slide Seminar로 하기 때문에 연 10회의 슬라이드 집담회를 가졌다. 1986년에 이르러 학회에서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월례집담회 관계의 자료를 수집하여 일단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동년 1월부터 기록수집 및 정리에 들어가서 동년 12월 18일에 대한병리학회 월례집담회 수록집(1960-1986)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발간비용은 3년 동안 월례집담회 회비로 증수하였던 경비 중 예비되었던 약 200만원으로 하였으며 수집가능하였던 Slide는 모두 현미경 사진으로 기록하였다. 이 책자는 월례집담회의 산기록으로서 이것이 완성되기까지 각 기관의 여러분들께서 큰 수고들 하였다.

1987년 학회 상임평의원회에서는 1987년부터는 학회 총무의 근무지인 경희의대에서 월례집담회를 맡아하게 되었는데 장소를 4군데로 나누어 1기관에서 2번씩 하기로 하였으며, 기록정리등도 해당기관에서 분담키로 하였으니 경희의대(2, 3월), 한양의대(4, 6월), 연세의대(7, 9월) 그리고 서울의대(11, 12월)였다. 기타 형식은 큰 변경 없이 진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6. 금후의 Slide 집담회

Slide 집담회가 시작된지 30년이 지났다. 이제 여러면에서 월례집담회는 성년기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그

동안 월례집담회는 우리 병리학회와 공동운명을 가지면서 꾸준히 발전해 왔다. 해부병리와 임상병리 논쟁의 와중에서도 그 정통성(entity)을 굳게 지키면서 병리학회를 이끌어 왔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 회원들은 입문하여 배우고, 성장하고, 세련되어졌다. 또 이를 토대로 많은 훌륭한 병리학자가 길러졌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시점에서 반성하고 더욱 발전시킬 방안을 찾아보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개인적으로 느낀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회원들의 참석수에 비해 활발한 토의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즉 어떤 특정분야의 병변이 나왔을 경우, 평소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흥미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여 지명토의자의 의견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제출자나 참석자가 모두 그 증례를 충분히 소화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이중 지명토의제를 도입하여, 3년차 전공의의 일차 토의후 전문가의 토의가 있도록 하면 좋은 데 한가지 문제점은 시간조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증례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경우에 따라 12증례(1988년 9월)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한시간(2시간 30분) 이내에 충분한 토의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증례의 내용도 가능한한 선별하여 다루는 것이 좋을 듯하다. 즉 증례제출의 목적이 뚜렷하고 이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될 증례를 공정한 원칙하에서 선택해야 한다. 즉 구연이나 포스타로 내는 것이 더 좋을 것은 과감히 그 방면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잘 선택된 5-7예를 가지고 집담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셋째 월례집담회 운영에 관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학회의 학술위원회가 이 행사를 전적으로 주관하여야 하겠으나 현재와 같이 매년 학회장과 집행진이 바뀌는 제도하에서는 차라리 월례 slide 집담회 운영위원회를 학회내에 특별위원회로 두어 임기를 최소 3년으로 하여 이들로 하여금 이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또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어떻가 생각된다. 그래서 이들이 월례집담회의 형식(format), 예를 들면 요즈음 증례요약에서 영문과 국문이 혼용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 참석자의 진단투표율의 저조를 어떻게 높일것인가의 문제, 노장급 학자들의 적극참여를 유도하는 문제 등등을 의논하고 결정하며, 지금까지의 운영방식을 재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키워갈 것은 키워 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맺 음 말

월례 슬라이드 집담회가 시작된지 30년을 맞으면서 이 행사에 대한 과거의 기록을 돌이켜 보고, 현재의 면모를 살펴보았다.

분명히 이 집담회는 대한병리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현재도 학술행사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진단병리학이 강조되어 왔던 지난날의 대한병리학회에서 정도관리 기구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 행사는 질적으로 향상을 거듭하면서 계속되어야 하며, 그렇게 됨으로서 우리나라 병리학에 이바지 하리라고 믿는다.

참 고 문 헌

- 1) Annual Report, National Medical Center, 1960.
- 2) 월례집담회 수록집 (1960-1986), 대한병리학회, 1986
- 3) Annual Report, National Medical Center, 1959
- 4) 이상국 교수와의 개인적 교신.
- 5) Annual Report, National Medical Center, 1964

— Abstract —

Monthly Slide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Pathologists

— A Historical Review on it's 30-year Anniversary —

Je G. Chi, M.D.

Department of Pat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 brief historical review of our monthly slide conference (MSC) was made. These conferences were begun by several pathologists in Seoul in 1959 under the name of "Monthly Meeting of Seoul Pathologists" acting on a proposal of Dr. Kristen Arnesen. Dr. Arnesen, a Scandinavian pathologist, was the first head of the Department of Pathology of the National Medical Center (NMC), which had been established in 1958 by the joint efforts of the U.N.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the governments of the three Scandinavian countries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National Medical Center and Holy Ghost Medical College (now Catholic Medical

College) were the first 4 participants who joined the conference from the beginning, and the conferences were hel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r at the NMC. This conference was incorporated into the official academic activity of the Korean Society of Pathologists by 1965.

The history of MSC was arbitrarily divided into five developmental stages: the first stage (1959-1960), second stage (1961-1963), third stage (1964-1970), fourth stage (1971-1983) and the fifth stage (1984-1988). The number of participating institutions increased to 11 by the end of 1973, 24 by the end of 1983 and 41 by the end of 1988. The total number of cases discussed at the MSC was 1,805 by the end of 1988. An average 100 members have par-

ticipated each month in the meeting since 1980, and a total of 65 slide sets have been distributed since 1986. This conference has contributed enormously in training resident pathologists and refining diagnostic skills of specialist pathologists. It has become one of the most interesting and eagerly-awaited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of Pathologists.

It is author's hope that this brief overview may convey some inspiration to our young pathologist colleagues and instigate increased efforts to refine their diagnostic skills and also to explore the vast and, as yet, unsolved problems in the pathology field in this country.

Key Words: Pathology, History, Korea